

금강경과 일상 둘 아닌 하나... 핵심 가르침 정리

새로운 해석으로 돌풍을 일으킨 금강경 해설서 15년만에 재탄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해설서가 우여곡절 끝에 소생되어 15년 만에 다시 나왔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경전 구절과 함께 108가지의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를 들었다. 이를 통해 금강경 내용이 우리 일상 생활과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생활을 통해 금강경의 내용을 풀어주는 일종의 강의 서라 할 수 있다.

저자인 김원수 흥익대 명예교수(재료공학부)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스승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으며, 자택마저 무료급식원으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실천하였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불교복지식당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 보면 공(空)과 불이(不二) 그리고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깨쳐서 ① 무소유 불자(佛子)가 아닌 큰 부자(富者) 불자, ② 세상을 의면하고 조용히 사는 불자보다는 유능하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지는 불자, ③ 역경과 재난을 피해 사는 불자보다는 역경을 감사하게 알고 재앙을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아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부처님의 참뜻을 잘 받들고 무량대복(無量福)을 누리며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승보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의 4대 특징

(1) 초등학교도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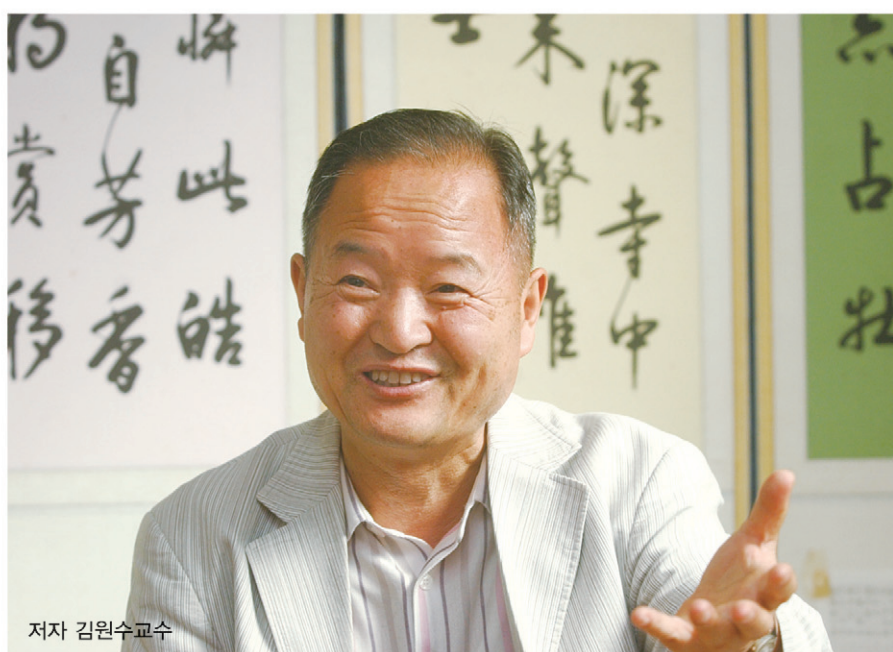
흥익초등학교 6학년 김모란
'금강경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설법(說法)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에는 머리 아프다며 설설 피해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엮어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란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금강경과 그 외의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2)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우만동 서원행 보살
젊은이든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기복으로 민다보니,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실패, 엄마의 고관절 수술과 위암판정, 아들의 병원 입원, 본인의 디스크와 심한 위궤양, 남편의 교통사고 등 끝없는 재앙에 오로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렵다는 금강경이 읽혀졌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읽다보니 한달만에 만성피부염이 나았고, 1년 만에 재앙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저자 김원수교수

(3) 깨달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경주 함월산 기림사 법회 보살
7년간 이 책을 100회 가까이 읽다보니, 매년마다 영적인 성장이 느껴져 너무나 놀라울 뿐이었다. 라즈니쉬 성자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보니, 온 몸에서 전율이 올 때가 많았다. 도반이었던 비구스님의 출가동기도 바로 이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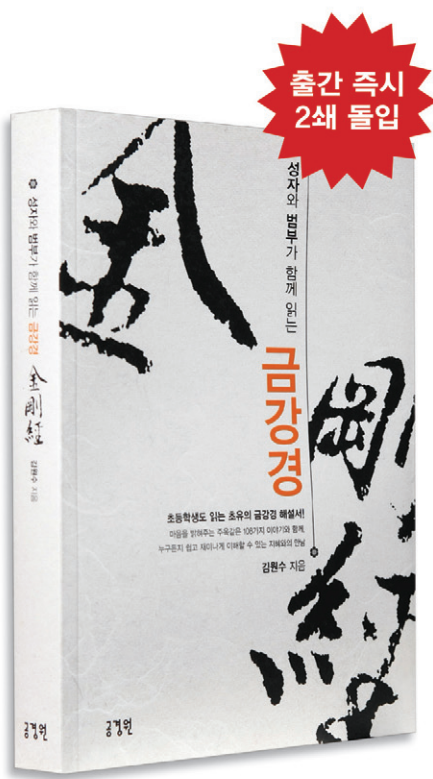
(4) 진리탐구도 가능합니다.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명예교수 임종욱
이 책이 제시하는 명쾌한 금강경 해설은, 이제까지의 피상적이고 실천불가능하게 받아들인 금강경 이해를 말끔히 씻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어느 듯 금강경 독송이 즐거워지면서 수많은 잡념들이 훌연히 사라지고 동시에, 원인모를 기쁨이 내면 깊숙이에서 분출되는 신선하고 색다른 체험으로 진리탐구를 하게 된다.

■ 저자 김원수 교수
금강경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저자는, 지난 40여 년간 금강경을 수지독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승 백성욱 박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도량을 세웠다. 그리고

자택마저 무료급식소로 내놓아 무주상 보시행을 9년째 실천한 공덕으로, 지난 2010년에 사회복지대상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도서출판 공경원
Tel : 070-7720-6832 fax : 02-303-5811
http://cafe.daum.net/diamondsutra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저 | 공경원 펴냄 | 19,000원

선종 최후의 공안집 '무문관' 48칙의 화두를 설봉 대선사가 평하고 송축하다

'선가한화(禪家閑話) 설봉도인 무문관 평송' 출간

『선가한화(禪家閑話)란 무엇인가? 내(설봉 선사)가 소백산 비로사에 있을 때, 선종(禪定)에 전념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 나누지도 않고, 또 경전이나 어록도 보지 않으며, 다만 말없이 나날을 보낼 뿐이었다. 마침 하루는 함께 머물고 있던 벗 최거정 선생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한 번 읽어보라 권하였다. 나는 감사히 받아 책을 펴서 한번 읽어 보았는데 나도 몰래 환희(歡喜)와 기쁨(歡躍) 하였으니, 실로 참선하는 사람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칠백오륙십 년 전인 남송(南宋)시대에 무문혜개(無門慧開) 화상이 지은 『무문관(無門關)』 48칙이었으니, 어찌 어설과 보아 넘기고 함부로 던져 둘 것인가? 본칙과 무문 화상의 각칙에 대한 평(評)과 송(頌)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자세히 뜻을 음미해 보면 무문 조사를 몸소 한번 보는 것과 매일반이니, 이 또한 속세의 인연이 있는 바이다.

나는 제방(諸方)의 점검과 꾸밈음을 마다하지 않고 무문 화상의 평송(評頌) 말미에 나 자신의 소견을 평송으로 덧붙였으니, 훗날 빛들과 탁마하여 서로 성장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만약 긍정치 못하는 사람은 청컨대 일전어(一轉語)를 내려 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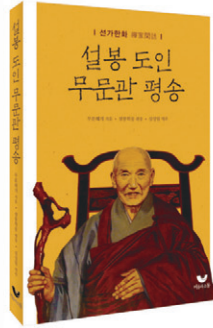
설봉 선사의 '선가한화 연기(禪家閑話 緣起)' 중에서

『무문관』은 송(宋)의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가 1228년에 출간한 공안(화두, 선문답)집이다. 선사가 직

접 고른 48칙의 공안에 일종의 힌트와 같은 간략한 평(評)과 송(頌)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선종 최후의 공안집'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널리 유통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근래 들어 여러 '무문관' 번역서들이 출판되었는데, 대부분 원문에 대한 번역과 각칙 공안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은 그렇게 치고 그 해설이란 것이 심하게 말하면 창작 소설 수준에서 철학 논문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중구난방이다.

그러다 역주(譯註)자인 심성일 선생은 우연히 근세 우리나라의 큰스님 설봉화몽(雪峰鶴夢, 1890~1969) 선사의 법어집인 『설봉대전』에서 『무문관』에 다시 평송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무문관』 48칙 공안에 대해 설봉 스님 나름의 안목으로 평과 송을 붙인 것이었다.

설봉 스님이 낱기신 법어와 함께 평송을 살펴보니 역주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큼 선지(禪旨)가 분명한 것이기에 함께 엮어 책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역주자는 자질구레한 군더더기 해설 대신 총철살인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할 수 있는 기원이 될 만한 설화들을 덧붙여 보았다. 역주자인 심성일 선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설봉 스님과 그분의 선풍을 제 부족한 솜씨로나마 되살려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제 불찰로 선사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랑이를 그리려 하면서도 겨우 고양이밖에 그리지 못하는 저의 미숙함 때문일 것"이라 출간 의도를 밝혔다.



『설봉도인 무문관 평송』 심성일 역주 | 비움과소통 펴냄 | 14,000원

저자 소개

설봉화몽(雪峰鶴夢, 1890~1969) 스님은 1890년 11월 25일 함북 부령(富寧)에서 정경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02년 한성중앙학교를 거쳐 공업전문학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고, 1910년 스무 살 되던 해에 조선총독부 문관(文官)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항일운동에 관여되어 감금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파면된 후 한동안 투옥 또는 도피 생활을 하다 1915년 25세에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釋王寺)로 출가해 참선 공부에 전념한다. 1920년 만공(滿空) 스님 화상에 머물며 더욱 공부를 깊이 하고 만공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어 1925년에는 도봉산 망월사 용성(龍城) 스님 문하에서 정진했다. 이후 20여 년간 오대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등에서 정진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선학원 등에 주석하면서 정화불사(淨化佛事)에 전력을 기울였다. 1955년 불교정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뒤 남쪽으로 주석처를 옮겨 후학들을 제정했다. 부산 범어사의 대각사, 선암사 등에서 머물던 스님은 1969년 4월 17일 선암사에서 세수 80, 법랍 55세로 원寂에 들었다. 전법제자로 금산지연(金山智源; 1931~2008) 스님이 있으며, 『선문료』, 『선학전』, 『선연소』 등의 원전을 헌토 주석한 저술을 남겼다. 현재 대덕사에는 금산 스님의 생가인 춘사(春社) 스님이 주지를 맡아 출자가 선례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 051-554-5022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받침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받침으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받침은 안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년 연꽃밑받침으로 조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화사지발악쑥양초
한동밑받침양초
① 약쑥초 90cm x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 f x 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 f x 27cm
④ 약쑥초 밑대 4.7 f x 25cm ⑤ 약쑥초 1호 5.9 f x 18cm ⑥ 약쑥초 2호 5.9 f x 14cm
⑦ 약쑥초 3호 4.7 f x 13cm ⑧ 약쑥초 4호 4.7 f x 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 f x 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 f x 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 f x 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 f x 18cm
⑬ 약쑥초 밑대 전사제(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⑭ 밑받침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제(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